

아르바이트생은 업주의 '뽕'

7 광주일보

제17543호 2006년 9월 4일 월요일

전국 1,000여명 참석 순천에서 '투견 도박'

경찰, 20명 검거 3명 영장

순천경찰청은 3일 전국에서 투견 도박단을 모집해 도박을 벌인 하모(45·경남 마산시 합정동)씨 등 20여 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하씨 등은 광주와 순천·부산·마산 등 전국 10개 도시에서 1천여 명의 도박단을 불러모은 뒤, 2일 밤 11시 30분경 순천시 해룡면 한 전어양식장 옆 공터에서 투견장을 설치하고 도박을 벌인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하씨는 경기당 관돈에서 20%를 때 심판과 장내 안내사 등에게 각 3%씩의 금액을 나눠주고 남은 돈은 싸움에서 이긴 투견 주인들에게 분배한 것으로 드러났다. 투견 도박에는 수백 명의 관람객들이 참여해 양팀으로 나뉘어 도박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현장에서 관돈 600여만원에 압수하고 하씨 등 3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나머지 17명은 불구속 입건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춘 도박단이 투견 도박을 벌인다는 첩보를 입수, 형사 100여 명을 동원해 차량 등을 동원해 도주하는 하씨 등을 붙잡았다.

/순천=김진수기자 jsk2229@kwangju.co.kr

호반베르디움 발파 사고

대한토건 대표이사 입건

광주시 남구 주월동 호반베르디움 2차 신축현장 발파사건(본보 8월28일자 7면)을 수사 중인 광주 남부경찰은 2일 작업 중 안전사고를 낸 협회(총포·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등)로(주)대한토건 대표이사 김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앞서 지난달 28일 이 업체의 화약탱크 최대(32)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6일 오후 1시30분경 호반베르디움 2차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파작업 도중 인근에 주차된 차량 등을 파손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 업체는 ▲발파 충격을 방지할 안전덮개가 낡았음에도 이를 제대로 차단하지 않은 채 작업을 강행했으며 ▲전날 내린 빗물이 모두 제거되지 않은 채 발파 작업을 해 '철표현상'(화약폭발이 위로 치솟는 것)을 일으켰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호반베르디움 1차 아파트 주민들은 지난 26일 인근 2차 아파트 발파작업 중 바위가 날아오는 등 위험에 노출되고 소음피해로 불편을 겪자 공사 중지를 요구하며 집단시위를 벌여왔다.

/서민정기자 viola@kwangju.co.kr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들은 여전히 업주들의 '뽕'이었다. 외상값 등을 모두 아르바이트 생들에게 떠넘기거나 임금을 체납하고 이리저리 '도망' 다니는 업주가 아직도 비일비재했다. 이런 열악한 실태는 지난 여름방학 기간 중 광주 지방노동청에 신고·접수된 피해 사례에서 확인됐다. 노동청이 8월 중 표본 조사한 결과도, 최저임금(시급 3천100원)을 주지않은 업소가 15.4%나 됐다.

◇45일 일하고 7만원 받아=지난 6월 22일~8월3일 한 달 보름 동안 광주시 광산구 E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신모(19·광주 모 대학 1년)씨. 그는 첫 달은 시간당 2천500원, 둘째 달은 시간당 3천원을 받기로 했다.

하지만 쉬는 날 없이 하루 5시간씩 근무한 신씨가 받은 돈은 '달랑' 7만원. 업주가 계산이 틀릴 때마다 신씨의 월급에

■ 대학가 여름철 피해 접수 분석 외상값 떠넘기기·임금 체납 '일췌' 최저임금 주지않은 업소 15% 넘어

서 감했고, 손님이 값지 않은 외상값도 모두 신씨 책임으로 물었기 때문이다.

신씨는 "업주가 사정이 어렵다고 해서 최저임금 미만으로 계약을 했는데 이럴 수가 있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신씨는 업주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광주지방노동청에 고발했다.

◇연락 회피=지난달 노동청에 체납 임금을 못 받고 있다고 신고한 변모(여·21·광주 S대 2년)씨. 그녀는 광주시 북구 B제즈바에서 한 달이 넘게 일했지만,

업주가 폐업을 하고 잠적하는 바람에 임금 58만원을 받지 못했다.

변씨는 노동청에 신고하기 전까지 계속 업주에게 연락을 했지만, 한 번도 연결되지 않았다. 노동청 역시 업주와 연락이 닿지 않자 업주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고, 업주의 어머니가 대신 변씨의 임금을 갚아주겠다고 나섰다.

노동청 관계자는 "임금을 체납한 업주들은 휴대전화의 전원을 끈 채 이리저리 도망다닌다"면서 "계속 연락을 회피할 경우 전국에 지명수배한다"고 말했다.

◇주책가 더 열악=광주지방노동청은 방학 중 PC방·주유소·편의점·소주방 등 449개소에 대해 단속을 벌였다. 그 결과, 법정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지급한 69개소를 적발했다. 대학가 인근 104개소에서는 10개소(9%)만이 단속된 반면, 주택가 345개소에서는 59개소(17%)가 적발됐다. 노동청은 상대적으로 수입이 적은 주택가 인근 업소가 저비용으로 아르바이트생들을 구하려 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노동청 근로감독 1과 정영환 과장은 "업주에게 노동력을 착취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계약 전 임금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면서 "내년 1월1일부터는 시간당 최저임금이 3천480원으로 인상되는 만큼, 보다 철저한 제도 활동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임주형기자 jhim@kwangju.co.kr



지난 2일 광주과학기술원 후문 도로에서 열린 '우주인 선발을 위한 기초체력평가'. 광주·전남 128명의 지원자들이 3.5km 달리기에서 역주하고 있다.

'한국 첫 우주인' 체력평가 3,176명 합격

"한국 첫 우주인 꿈을 반드시 이루겠다"

한국 최초의 우주인 선발을 위한 기초체력평가(본보 9월2일자 1면)에서 모두 3천176명이 합격했다. 과학기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지난 2일 전국 6개 지역에서 실시한 한국 우주인 1차 선발을 위한 기초체력 평가에서 참가 대상자 1만여 명 중 3천323명이 참여, 이 가운데 3천176명(남 2천756명,여 420명)이 합격했다고 3일 밝혔다.

광주·전남선 128명

17일 필기시험 치러

광주·전남지역에서는 128명(남 117명, 여 11명)이 참여, 남자 지원자 5명만 탈락했고 나머지 123명은 첫 관문을 가볍게 통과했다. 합격자들은 남자의 경우 3.5km 달리를 23분 내에, 여자는 28분 내에 주파했다. 개인별 합격자는 5일 최종 발표되며, 연구원 홈페이지(www.woojuro.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초체력평가 통과자들은 오는 17일 필기시험(영어/종합상식)을 치른 뒤 종합평가와 기본신체검사 등을 거쳐 10월 중순경 1차로 300여 명이 선정된다. 이후 2·3·4차 선발 과정을 거쳐 내년 1월경 우주인 후보 2인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선발된 2명은 2007년 초부터 러시아 가가린 우주인 훈련센터에서 기초 훈련·우주 적응훈련 및 우주과학실험 수행을 위한 입무훈련 등을 받은 뒤 최종 1명만 2008년 4월 러시아 소유즈 우주선에 탑승하게 된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사행성 게임기계

통째로 압수한다

경찰과 경찰청은 사행성 게임기 '두뇌'에 해당하는 기관판을 떼어내 보관한다는 기존 방침을 바꾸어 게임기를 통째로 압수해 폐기처분하기로 했다. 이는 정부가 최근 게임기 보관 참고 임대료가 포함된 44억2000만원의 예비비(사행성 게임장 및 PC방 단속경비)를 지원키로 결정하는데 따른 것이다.

업주들은 기관을 압수당하더라도 손해를 줄이기 위해 대당 550만~700만원에 달하는 게임

檢·警, 보관 문제 해결

기 본체를 빼돌린 후 단속이 뜸해지면 기관을 갈아끼워 영업을 재개했다.

검·경은 이런 문제점을 파악하고도 '압수물 사무규칙' 때문에 본체 압수를 선택 결정하지 못했다. 이 규칙은 법원의 확정 판결로 폐기처분이 결정되기 전까지는 압수물이 훼손되지 않게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예비비가 지원되는 대로 민간인이 소유한 참고 중 보관시설이 갖춰진 참고를 빌려 압수한 게임기를 우선 옮겨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권익기자 cki@

나원침 (6917)



연예2차동원회
대주 피오레
1,300여 배우 중 35명만 3534명
문의 (062)366-4220

여수 소리도 해상 선원 실종

지난 2일 오후 3시30분경 여수시 돌산읍 남면 안도와 소리도 인근 해상에서 여수선적 37t급 '정해호' 선원 박모(60)씨가 멀치잡이 그물을 인양하던 중 배와 그물을 연결하는 파이프가 부러지면서 바다로 추락, 실종됐다.

/여수=강성훈기자 kangsw@kwangju.co.kr

광주 구동체육관 폭죽으로 화재 '소동'

○...지난 2일 오후 2시33분경 광주시 남구 구동실내체육관에 서 열린 '제2회 빛고을배 전국 프로·아마 맨스스포츠 선수권대회' 개막식에서 폭죽 불꽃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 천정 장식 일부가 불에 탔다고.

○...이날 화재는 폭죽이 발사된 뒤 불꽃이 천정에 있는 장식 천에 옮겨 붙으면서 일어났는데, 곧바로 대회 관계자들에 의해 자체 진화.

○...하지만 체육관 내 1천200명의 참가자들이 대피하는 등 큰 소동을 빚었으며, 대회 시작도 20여 분간 지연.

/서민정기자 viola@kwangju.co.kr

BRAVIA RONY

브라비아 2년 무상보증 서비스 실시!

R-Series V-Series E-Series S-Series

BRAVIA

02-366-1111
02-366-3000
02-366-3000

침하된 구조물복원 및 인역지반 강화공법의 신개념

국립건설기술연구원

우주력 공법의 특징

- 노년복합구조물 복원
- 계층강화 복원시반(우식)에 비해 우식
- 노년시공을 위한 안전성 확보
- 동등 공력 70%

우주력 공법의 적용분야

- 노년복합구조물
- 노년복합구조물
- 노년복합구조물
- 노년복합구조물

02-366-1111
02-366-3000
02-366-3000